

제23호

행정 명령

뉴욕주 노령화 마스터 플랜 수립

뉴욕은 건강하고 의미있는 노화의 가치를 증진하는 정책(뉴욕주 예방 의제, 모든 정책의 건강, 고령 친화적 뉴욕, 고령 친화적 건강 시스템 이니셔티브 및 뉴욕주 노화 계획 포함)을 통해 모든 뉴욕 주민들이 존엄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나이가 들 수 있도록 연령 친화적인 환경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뉴욕은 미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노인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320만 명의 뉴욕 시민(인구의 16%)이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뉴욕의 60세 이상 인구는 2030년까지 530만 명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며 80세 이상은 120 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2030년까지 51개 이상의 카운티 인구의 25%가 60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60세 이상 18개 카운티 인구의 최소 30%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노인 인구는 주의 다른 어떤 연령대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뉴욕은 세계 보건기구(WHO)의 8가지 거주 가능성 영역(야외 공간 및 건물, 교통, 주택, 사회 참여, 존중 및 사회적 포용, 업무 및 시민 참여,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지역사회 및 의료 서비스)을 기반으로 한 지위인 미국 은퇴자 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AARP)에 의해 미국 최초의 고령 친화적 국가로 선정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뉴욕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일하고, 살고, 놀고, 나이를 먹는 조건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의 조건을 형성하는 광범위한 힘과 시스템을 포함하여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을 다루는 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 왔으며 이는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복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다수의 뉴욕 시민들은 은퇴 기간 동안 주에 남아 있기를 희망하고 노인과 베이비 붐 세대는 주에서 가계 소득의 63%를 창출하여 경제와 세금 기반을 지원하기 **때문에**,

노화와 함께 건강 관리 이용률과 만성 질환을 포함한 건강 관련 상태가 증가하고 뉴욕은 우리의 건강 관리 시스템이 치료, 특히 장기 요양에 대한 다가오는 요구와 선호도를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Medicaid 및 Medicare를 통한 장기 요양에 대한 공적 자금은 상당하며 건강한 노화의 광범위한 목표를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 인력 문제는 비공식 및 가족 간병인을 더 잘 지원하는 방법과 함께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노인과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지역사회에 남아 있기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의미있는 선택은 건강 관리, 가정 간호, 식품 및 영양, 인적 서비스, 주택 및 교통을 포함한 광범위한 공공 및 민간 프로그램, 자원 및 지원에 대한 접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가족 간병인은 일과 간병의 균형을 유지하고 노인과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보살핌을 제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족 간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렴하고 적절한 주택, 교통, 제자리에서 노화 할 수 있는 능력, 정신 건강, 고립, 연령 차별, 시민 참여 기회 및 노인 학대 예방에 관한 문제는 포괄적인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정부는 노령화 인구의 요구를 긍정적인 초점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대중과 노인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을 의미있는 계획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연령대의 뉴욕 주민들이 가능한 한 독립적으로, 건강하고, 나이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함께 만족스러운 삶을 계속 살 수 있도록 주 노령화 인구의 변화로 인해 발생할 기회와 도전에 대한 계획을 세우려면 새로운 수준의 전략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본인 Kathy Hochul 뉴욕주지사는 헌법과 뉴욕주 법률, 구체적으로 뉴욕주 헌법 IV조 1항(Article IV, Section 1)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령하는 바입니다.

1. 뉴욕주 노령화 마스터 플랜은 기존 및 신규 주 정책 및 프로그램을 조정하여 고령의 뉴욕 주민들이 자유, 존엄성 및 가능한 한 오랫동안 노년기에 대한 독립성을 갖춘 만족스러운 삶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시행할 전략의 청사진을 작성합니다.
2. 뉴욕주 보건부는 주 노령화 사무국과 협력하여 뉴욕주 노령화 마스터 플랜을 개발할 때 주지사에게 조언하기 위해 노령화 마스터 플랜 협의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보건부 커미셔너 또는 그 피지명인이 위원회의 의장으로 봉사하고 부국장 또는 지명인이 위원회의 부의장을 맡습니다. 협의회 위원에는 주지사 또는 그 피지명인이 결정한 관련 집행 기관 및 사무소의 위원과 이사가 포함됩니다.
3. 행정부 기관은 노령화 협의회를 위한 기본 계획의 작업에 참여하고 작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4. 노령화 마스터 플랜 협의회는 이 명령이 제정된 후 60일 이내에 소집되어야 하며, 이해 관계자 자문 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 후 24개월 이내에 발행을 위해 주지사에게 권장되는 노령화 마스터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5. 뉴욕주 보건부는 주 노령화 사무국과 노령화 마스터 플랜 협의회와 함께 이해 관계자 자문 위원회를 소집하여 마스터 플랜 개발에 있어 주지사와 노령화 마스터 플랜 협의회에 조언합니다. 위원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이해 관계자 자문 위원회의 의장과 부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 a. 이해 관계자 자문 위원회는 가장 고령 친화적인 주 중 하나로 뉴욕의 위상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계획에 전념하는 광범위한 사람들의 대표를 포함해야 합니다. 자문 위원회 의원은 의장 및 부의장이 추천해야 하고 건강 관리 및 지원 서비스 제공자, 소비자, 비공식 간병인, 노인(특히, 격차를 경험한 커뮤니티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 건강 보험, 노동 단체, 커뮤니티 기반 단체, 고용주, 노화 전문가, 학술 연구원, 재단, 지방 정부 및 부족 커뮤니티를 포함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b. 이해 관계자 자문 위원회는 이해 관계자 자문 위원회의 1차 회의 후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의도된 활동을 상세히 기술한 예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간 경과에 따라 추적될 목표 대책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위원회의 활동 및 진행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는 보고서는 요청 시 제공됩니다.
 - c. 이해 관계자 자문위원회는 이해 관계자 자문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 후 18개월 이내에 노령화 위원회 및 주지사에게 마스터 플랜에 전달할 자문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d. 이해 관계자 자문 위원회에는 장기 요양 서비스 및 지원,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및 간병인을 전담하는 소위원회가 있어야 합니다. 이 소위원회는 이해당사자 자문 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 후 12개월 이내에 자문 위원회, 노령화 위원회 기본 계획 및 주지사에게 직접 보고해야 합니다.

- e. 이해 관계자 자문 위원회는 추가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6. 노령화 마스터 플랜 계획 개발 프로세스에는 자문 위원회 회의, 타운 홀 또는 이와 유사한 의견 수렴 포럼 또는 의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대중 참여 수단 중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 대중과의 지속적인 참여 기회가 포함됩니다.
- 7. 노령화 마스터 플랜 협의회 및 이해관계자 자문위원회는 회의 소집, 소위원회와 중점 그룹을 구성하여 특정 현안을 해결하고 통지, 회의 자료 및 노령화 마스터 플랜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타 정보를 게시할 목적으로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2022년 11월 4일 올버니 시에서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 및 주 인장의 권한에 의해 이를

발표합니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